

GRIT

김상훈 고급국어 2017

GRIT

[NOUN] If someone has grit, they have the determination and courage to continue doing something even though it is very difficult.



GRIT 2017

김상훈 고급 국어



김상훈 고급 국어 2017

GRIT

[NOUN] If someone has grit, they have the determination and courage to continue doing something even though it is very difficult.

“ 기출 문제는 이제 기억으로 풀고 있는 건지,
읽으면서 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요? ”

해마다 학생들이 토로하는 국어 공부의 어려움이다. 기출 문제가 수능 국어 공부의 가장 좋은 재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년 내내 기출“만” 보라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이다. 물론 지문의 대부분과 문제의 답이 머릿 속에 남아 있더라도 기출을 다시 점검하는 것은 분명 국어 공부의 일부분이겠으나,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방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출 분석을 통해 기본기를 닦았다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문제들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적용해 보는 과정도 필수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이 바로 “GRIT”이다.

1. 어렵다, 하지만 평가원과 강대가 검증했다.

교재는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가치있는 지문들만을 엄선하였다. 우선 자료들은 평가원의 모든 출제 소스와 수능 수준에 도달한 여타 지문들 중에 엄선하였다. 평가원이 수능 이외의 다른 시험에서 출제한 문제들은 평가원의 검증이 끝난 것이고, 여타 지문들은 지난 몇 년간 강대의 학생들과 수업 시간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수능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과 수능적으로 의의가 있는 지문만을 엄선하였다. 문제를 풀고 나서 “시간 버렸다”거나, “괜히 풀었다”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을 것이다. 수능과 6·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여러번 “기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들이다.



2.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다. “GRIT”하라. 고생한 만큼 성적은 반드시 오른다.

교재 이름인 “GRIT”은 표지의 뜻풀이대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라는 뜻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자세이다. 이 교재를 “GRIT”하기 바란다. 문제 푸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고생한 만큼 성적은 반드시 오를 것이다. “GRIT”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독해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며 이전보다 더 나아지길,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

3. 2017년판 추가 머리말

작년에 인강과 단행본으로 세상에 나온 GRIT은 나오자마자 참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다. 강대 학생들이 전설적인 교재라 인정해주던 사랑도 과분했지만, 또 세상이 보내 준 열렬한 호응과 환호에, 저자로서 비단 값싼 공명심이 아니더라도 실로 무한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바로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이다.

생각하면 강남대성학원에서 처음 GRIT(강대고급국어)이라는 이름의 교재로 학생들과 수업한 지 꼭 5년이 되었다. 이제는 신예의 치기와 젊음의 열정으로 스스로를 변명할 수 없게 된 때가 오고 만 것이다. 수준 있는 교재란 어떤 것이고, 좋은 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밤을 새워 더 치열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불 꺼진 교무실에 혼자 앉아 지문을 선정하고 문제를 수정해 가며, 처음으로 GRIT이(강대고급국어)란 제목을 붙이고 다음날 학생들과 수업할 기대에 설레며 밤길을 혼자 걸어 가던 5년 전의 그 마음만큼은 잊지 않을 것이다.

대학 시절 어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해 주셨던 말씀이다. 학생들이 “널판의 가장 얇은 부분만을 골라 뚫는” 자세를 버리고 어렵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학생들의 꿈과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처음의 그 각오 그대로, 학생들이 GRIT을 통해 국어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대로, 올해 교재를 또 세상으로 내 보낸다.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



독해 연습 1

인문 1강 | 권리의 문법



1부 독서편

MEMO

120 가 가 가

가 .²

,

.³

.⁴

가

,

“ 가 가

가 .” 가

.

5 가 ‘ , ‘ , ‘ .⁶

가 , ‘ , ‘ , ‘

가 .⁷ 가

가

.⁸

.

9 .¹⁰ ,

,

11 , , ,

, .¹² ,

,

가 ,

.¹³ , ,

,

.

14

가

15

가 16

17

가

가

가

가

가

가

18

가

가

가

19

권리의 문법

20

가

가

가

21

가



01

위 글에 나타난 호펠드 법철학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 가 .
- 가 .
- 가 .
- 가 .

02

두 사람 사이의 단일한 권리 관계에서 볼 때, **권리의 문법**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
- 가 .
- 가 .
- 가 .
- 가 .
- 가 .
- 가 .
- 가 .

03

호펠드의 근본 개념들이 <보기>의 상황에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경기 도중 득점 기회를 잡은 선수 A를 막으려고 상대 팀 선수 B가 정당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A는 경기장이 미끄러운 탓에 몸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심판 C는 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B를 퇴장시켰다. 심판은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B의 팀은 C의 판정에 따라 한 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했다. 감독 D는 수비 약화를 우려하여, 뛰고 있던 공격수를 빼고 몸을 풀고 대기 중인 선수 E를 투입했다.

- A B 가 .
- A C .
- B C .
- C D 가 .
- D E가 가 .



독해 연습 1

사회 1강 | 자유와 속박



1부 독서편

MEMO

1 가 가 . 2 가
 , 가 ,
 가 . 3
 . 4
 .
 5 가 가
 . 6 ,
 . 7 가 ,
 , _____ ,
 .
 8 가 가
 . 9 , , 10
 , 가 11 , , ,
 , 가 가 .
 12 .
 13 가
 가 . 14
 , . 15
 ,
 . 16 ,
 ,
 .
 17 , ' / ' ' /
 , . 18

가

19

20

21

22

23

가

24

가

25

가

26

27

가

가

28

가

가

29

30

가

가

31

X

X

가

32

가 X

가

X

33

가



01

위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은?

가

가

02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03

〈보기〉가 뜻하는 바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독수리처럼 날 수 없고 고래처럼 헤엄칠 수 없는 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 가 .
- 가 .
- 가 .